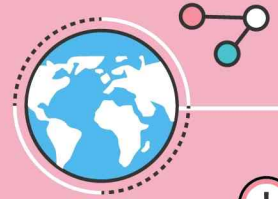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반도체, 미국·네덜란드·중국】 미국, 네덜란드에 ASML 반도체 장비도 중국 금수 요청

【수출입, 미국】 美 5월 무역적자 올해 들어 최소 수준, 에너지 교역은 최고치 기록

【밀가루, 인도】 인도, 밀과 설탕에 이어 밀가루 등 밀 관련 식품 수출도 규제

【물류, 세계】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SCFI) 4주 연속 하락

【경제, 신흥국】 신흥국 디플트 위기, 스리랑카 넘어 세계로 확산

【에너지, 중국】 중국, 봉쇄 완화·전력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전력난에 대비

【에너지, 러시아·EU】 유럽 가스가격 3월 이후 최초로 1,900달러 이상 기록

【통상·친환경, EU】 유럽의회,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사업으로 최종 승인



GVC 기초상식

EU 탄소노미(EU Taxonomy, 녹색분류체계)



GVC 뉴스 더하기

- ① 항구 봉쇄 상황 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 ② 中 태양광 산업 호황, 공급망 다양화는 각국의 과제



GVC 돋보기

철강의 생산방식 1편
- 고로 방식(BF, Blast Furnace)



GVC 전문가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품귀현상과 대응 방안



GVC 소식통

- ① 라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안내
- ③ 공급망 관련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소식



더 찾아보기

라우 사태가 독일에 미친 영향, 현지에서 들려드립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반도체, 미국·네덜란드·중국】 미국, 네덜란드에 ASML 반도체 장비도 중국 금수 요청**

-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압박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달 초, 구형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까지 중국 판매 금지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블룸버그가 보도
 - (EUV) 10나노 이하급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EUV 노광장비'가 필수적, 이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ASML사가 유일한. 반도체 제작 중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인 '리소그래피'의 차세대 기술
 - (DUV) 심자외선 노광장비는 EUV 같은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자동차나 스마트폰, PC, 로봇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술
- 블룸버그는 美 상무부 장관 돈 그레이브스가 5월 말 네덜란드 방문 당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에서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와도 만났다고 전하며 미국의 요청을 네덜란드가 수용하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화홍 반도체'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
 -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노광장비를 수입하지 못하자 구형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적극적으로 수입, SMIC는 ASML과 12억 달러 규모 DUV 장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독일, 벨기에에 이은 3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로 아직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함
-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니콘 DUV 노광장비의 중국 판매 금지를 요청. 민간 싱크탱크 대만경제연구원 (TIER)의 존슨 왕 애널리스트는 노광장비는 중국이 가장 대체하기 힘든 장비로 노광장비 해외 조달이 막히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도 멈춰 설 것이라고 전망

출처 :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종합

● **【수출입, 미국】 美 5월 무역적자 올해 들어 최소 수준, 에너지 교역은 최고치 기록**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2.5월 미국의 수출은 2,559억 달러로 전월보다 1.2% 증가했지만 수입은 3,414억 달러로 0.6% 소폭증가하여 무역수지 855억 달러 적자를 기록, 전월 대비 1.3% 감소하였음을 발표
 - 5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2,55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적자는 4월 867억 달러 대비 12억 달러 줄어든 855억 달러로, 지난해 12월 789억 달러 이후 최소치이며, 지난 3월에 다시 1,000억 달러 이하로 집계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 기록 (국제수지 및 계절 조정 기준)
- 러-우 분쟁 여파로 5월 석유 수출액(\$277억)과 비석유 수출액(\$1,494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석유 수입(\$271억) 역시 '14.7월(\$278억) 이후 최고치를 기록
- WSJ는 가정의 상품 소비 감소가 수입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 수출이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블룸버그는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양방향 무역활동 억제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쇼핑 시즌에 따른 수입품 증가 전망

출처 : WSJ, 블룸버그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밀가루, 인도】 인도, 밀과 설탕에 이어 밀가루 등 밀 관련 식품 수출도 규제**

-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설탕 수출량 제한(22.6.1)에 이어 7.12일부터 밀가루 등 밀 관련 식품 수출 규제를 8일(현지시간) 발표. 이에 12일부터 밀 관련 식품 수출 업체들은 수출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밀가루의 품질 유지와 자국 내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세계 밀 생산국 2위인 인도는 지난 5월 중순 식량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제한하며 특정 국가로의 일부 물량의 반출만 허용하고 있음
-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인도의 설탕·밀 등의 수출량 제한은 지나친 '식량 보호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인도 정부는 지난해 생산량 1억9,000만t 중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소비되었고, 수출량은 700만에 불과하다며 주요 밀 수출국이 아니었음을 강조함

출처 :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물류, 세계】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SCFI) 4주 연속 하락

- 지난 8일 기준,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4,143.87을 기록(전주 대비 59.4포인트 하락). 7개 노선 가운데 남미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서 운임지수 하락
 - 지난 1월 사상 처음 5,100선을 돌파 → 17주 연속 하락 → 4주간 상승(520일 기준점) → 다시 하락세
- 해운업계는 ① 미국 기준금리 인상, ② 중국 건설업 회복 지연, ③ 원자재 가격 약세 등에 따른 해상 물동량 감소를 원인으로 언급함. 해운업은 대표적인 경기 선행 산업으로 최근 물동량 감소 및 운임 하락 흐름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전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지난 5월 미국의 소매 재고는 7,053억 달러(약 916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하였고, 국내 기업의 전자제품, 중고차 등의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경기침체 우려로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출처 :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보도 종합

● 【경제, 신흥국】 신흥국 디폴트 위기, 스리랑카 넘어 세계로 확산

- 지난 4월 스리랑카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5.18일부터는 기한 내에 국채 이자를 내지 못해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에 돌입
- 블룸버그는 스리랑카에 이어 많은 신흥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음을 전망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등 세계 경제환경 악화로 신흥국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 스리랑카에 이어 엘살바도르,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이 디폴트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진단
 - 블룸버그 신흥시장 종합 국채지수는 올해 약 20% 하락해 '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하락치를 기록했으며, 신흥국 국채의 약 25%가 부실채권 수준에서 거래되는 중
 - 지난 1980년대 중남미 부채위기와 같이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다른 국가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우려
-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자본의 이탈도 가속
 - 지난달 신흥국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40억 달러(약 5조1,904억원)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4개월 연속 순 유출을 기록(국제금융협회)

출처 : 연합뉴스('22.7.8)

● 【에너지, 중국】 중국, 봉쇄 완화·전력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전력난에 대비

- 중국 내 6월 전력 수요가 봉쇄 완화·전력 소비 상승·폭염 등으로 인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그에 반해, 4·5월 전력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함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에 따르면, 서북과 화북지역의 전력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3.2% 증가, 장쑤성(제조업 허브)의 지난달 17일 최대 전력 수요 100GW 돌파(21년 대비 19일 단축)

- 중국 전체 전력 생산 중 화력이 71.1%, 수력이 14.6% 비중 차지.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에 따라 중국의 화력 발전도 감소(80→70%)하였지만, 석탄 생산량을 늘려 화력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 전문가들은 흑연, 철강 등 에너지 소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전기 사용 제한 조치에 대비를 요구하면서도, 당국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노력(석탄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작년과 같은 전력난은 없을 것이라 분석함
- 이에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과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연결돼 있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내 기업은 에너지 다소모 품목의 공급 차질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 한국무역신문

● 【에너지, 러시아·EU】 유럽 가스가격 3월 이후 최초로 1,900달러 이상 기록

- 7.7일 ICE(유럽상품거래소)의 가스 거래가격이 한때 1,962.97달러(천 입방미터당)까지 치솟음. 동일자 TTF(네덜란드 소재 상품거래소)의 8월 가스 선물 가격은 1,922.85달러(천 입방미터당)까지 기록, 동 거래 가격은 3.9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러 가스프롬이 對유럽 가스 공급을 크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언론 보도됨
- 한편 러 가스프롬은 6월 중순 가스관용 터빈이 부족해 가스관 작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인 노드스트림1 가스 공급량을 기존의 40% 수준으로 감축, 7.11~21일 기간에는 가스관 2개 라인의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힌 상황
- 이 터빈은 러 가스프롬사가 독일 지멘스에너지사에 수리를 맡겼던 제품으로 캐나다 업체가 정비한 이후 對러 제재로 반환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7.9일 조너선 윌킨스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이 동 건에 대한 제재를 풀어 독일로 반환하겠다고 발표, 부품 문제 해결에 따라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정상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출처 : 한경 등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종합

● 【통상/친환경, EU】 유럽의회,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승인

- 6일(수)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집행위 이행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결됨
 - '21년 12월 既 발효한 택소노미 규정 도입 당시, 논란이 되던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추후 집행위 이행 입법으로 확정하기로 한 바 있음
 - 집행위는 올 초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이행 입법을 제안했으며, 법안 부결을 위해서는 총 353명의 찬성이 필요하였지만 찬성이 328명에 그쳐 법안 부결에 실패
-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행 입법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20개국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23.1.1부터 발효될 예정
 -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유럽의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집행위 이행 입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가스 등의 친환경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2030년까지 석탄을 대체하는 가스 프로젝트만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되고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및 투명성 요건이 부과될 것이라 설명
 - '원자력 유럽(Nuclear Europe)'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이번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했으며 EU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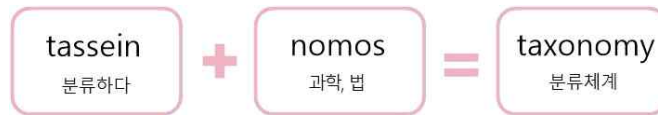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22.7.7)

GVC 기초 상식 : EU 택소노미(EU Taxonomy, 녹색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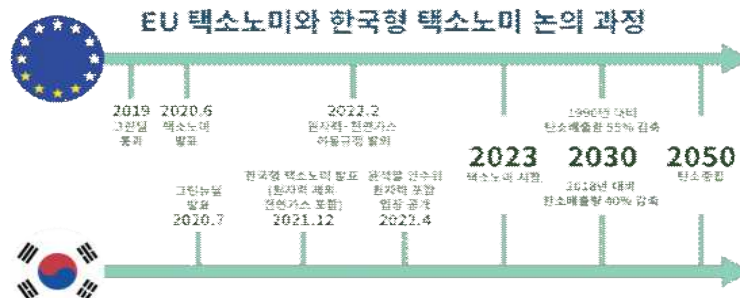
※ 지난 7.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였음. 이에 택소노미가 무엇이고 유럽과 한국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자



● EU 택소노미(EU Taxonomy) 개념

- 택소노미(Taxonomy)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의 tassein과 '과학·법'을 의미하는 nomos의 합성어로 '가나다', 'ABC' 형태처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전통적 분류체계를 의미함
- EU 택소노미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녹색산업 분류체계로 선별하여 녹색 활동*으로 선별된 분야에 한해 그린 딜(Green Deal)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의 개념을 구체화한 것임
- * 환경보호, 에너지, 제조, 수송 등 13개 분야에 걸쳐 모두 101개의 행동을 녹색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EU의 목표인 2050년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임



●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택소노미 논의 과정



 EU 택소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6월 EU가 세계최초로 EU판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 ▪ '22.2.2일, EU 집행위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 Taxonomy 법안 발의 ▪ '22.7.6일, 유럽의회 본회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EU Taxonomy 채택 * EU Taxonomy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 투표(포함찬성278, 포함반대328, 기권33) 하였고 포함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53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야 하나 25표 부족하여 포함하기로 결정 ▪ '22.7.11일까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23.1.1. 발효 예정 * 가중다수결(총 27개국 중 EU 인구의 65%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20개 회원국)의 반대시 철회 ↳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원안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K 택소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0일,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을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함 ▪ '22.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할 의사를 밝힘 ▪ '22.7월말 ~ 8월초에 수정된 내용의 K택소노미 발표 예정

📌 GVC 뉴스 더하기 ① : 항구 봉쇄 상황 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 우크라이나 곡물은 남부 두 항구도시인 오데사와 마리우폴을 통해 수출되어왔으나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 해군의 흑해 봉쇄로 선적이 불가능해졌음. 이에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식량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바, 그 외 루트를 통한 최근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동향을 검토해보고자 함

● 러-우 사태 이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경로

-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는 수출용 곡물의 90% 이상이 항구를 통하여, 매일 400~500만톤 규모로 주로 對중동, 아프리카로 수출되어 옴
- 우측 그림의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 중 붉은색 표시 항구가 러시아 점령 지역의 항구

〈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 〉



(자료: Euractiv)

●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대체 경로 및 추이

-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봉쇄 이후 EU집행위 이니셔티브 '연대 경로(Solidarity lanes)'로 철도, 도로, 강 항구 등을 통해 유럽 항구로 수출
- 주로 루마니아, 폴란드 등 인근국 항구를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잠재 경로에는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및 벨기에 항구로 철도 및 트럭 이동 후 수출하는 방식이 있음
 - (철도 활용시의 문제) 우크라이나와 유럽 철도 규격이 달라,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기차 → 유럽 기차로의 곡물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 대안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소련 국가로 철도 규격이 같은 벨라루스 → 리투아니아 루트인데, 벨라루스 역시 러시아와 같은 EU의 제재 대상국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음

〈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의 수출 대체 항구 〉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 이동을 위한 철도, 트럭 루트 〉



(자료: Euractiv)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EU집행위 이니셔티브 '연대 경로'로 '22.3월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 일부 증가'
 - (연대 경로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EU집행위의 EU-우크라이나 연결 개선 정책. 추가 화물 기차·선박·트럭, 국경 선적 우선순위 지정 등의 방향임
 - (22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 [3월] 30만톤 → [4월] 110만톤 → [5월] 170만톤
- EU 차원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수확 시기를 앞둔 상황임에도 2,200만 톤 이상의 곡물이 우크라이나 창고에 묶여있으며 여전히 가격은 상승세로,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우크라이나 농업부 차관 역시 Euractiv 인터뷰에서 항구 봉쇄 해제만이 글로벌 식량 위기 및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내 추가 비축 공간 확보 등을 위한 공극적 해결책이라 밝힘

GVC 뉴스 더하기 ② : 中 태양광 산업 호황, 공급망 다양화는 각국의 과제

※ 7.7일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태양광 패널의 주요 제조단계에서 중국 점유율이 80% 이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중국이 태양광 발전 비용 인하에 공헌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공급망의 지리적인 집중은 각국 정부가 대처해야 할 잠재적인 과제라 피력한바, 중국 중심의 태양광 산업 동향을 살펴보자

● 중국 태양광 산업 호황

- 중국 태양광 발전 사업은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단결정·다결정 실리콘 관련 수요가 급상승하며 폴리실리콘 가격은 20주째 오름세
- **(폴리실리콘 가격)**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 모듈의 원재료인 다결정 실리콘으로, '20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가격 상승. '22.6월 셋째 주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은 톤당 27만3,00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연초 대비 17.8% 증가
-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20년 중국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48.2GW로 전년 대비 60.1% 급증. 이에 따라 '20년 말 기준 중국 태양광 발전설비 총 용량은 254GW를 달성하였고 '21년에는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55GW를 초과하며 총용량 300GW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



(자료: 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 wind)



(자료: BP, 중국태양광발전협회 등)

● 빠르게 생산능력 확충하며 공급량 확대

- 태양광 산업 호황 속에서 '21년 중국 폴리실리콘 소비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9만 톤. 시장수요 급증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생산가동률을 80%대까지 끌어올려 공급을 늘리는 중
- **(생산 가동률)** '21년 중국 25개 폴리실리콘 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87.5%, 자급률은 '20년부터 80% 이상 유지해, '22.1~5월 중국 내 생산가동률은 88.3%에 달했음
- **(생산량)** '21년 중국 25개 폴리실리콘 기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1% 증가한 48만7,000톤이고 '22.1~5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4% 증가한 27만4,300톤으로 집계됨
 - '22년 들어 중국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및 이에 따른 봉쇄조치로 3월부터 심각한 물류난, 공급차질이 발생했음에도 폴리실리콘 생산량 꾸준히 상승세. 5월 생산량은 6만 톤을 상회,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20.9월 생산량의 2배에 가까운 수치

〈중국 폴리실리콘 수급동향〉(단위:톤, %)

연도	생산능력	생산량	소비량	가동률	기업 수	자급률	대외의존도
2019	514,500	321,010	424,883	62.4	25	76	24
2020	556,500	395,500	488,245	71.1	25	81	19
2021	556,500	487,000	590,783	87.5	25	82	18
2022.1~5.	745,500	274,300	301,759	88.3	25	91	9

(자료: 중국 원자재 시장 조사업체 BAIINFO)

● 두드러지는 수출 증가세

- **(수입)** 시장 활황으로 '21년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3% 급증하며 20억 달러 돌파, '22년에도 수입 증가세로 '22.5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0% 급증한 10억5,000만 달러
 - (주요 수입국) 독일('21년 수입 1위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산 제품 수입이 세자릿수 고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21년 수입 3위국), 한국('21년 수입 6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세
- **(수출)** 중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은 '100% 자급'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태양광 활황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 중. '21년 중국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억4,000만 달러, '22년 들어서도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출은 1~5월 기간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성장세를 유지 중
 - (주요 수출국) 한국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1위 수출국으로 '21년 對한 수출 5,573만 달러로 중국 전체 폴리실리콘 수출에서 40% 차지.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22.1~5월 對미 수출 108% 증가

〈 중국 폴리실리콘 수출입동향 (HS 2804.61) 〉 (단위: 천불, %, 톤)

연도	수입금액	수입금액 증감율 (전년동기비 %)	수입량	수출금액	수출금액 증감율 (전년동기비 %)	수출량
2019	1,315,044	-	105,060	74,042	-	1,187
2020	1,001,021	-24	95,235	75,370	2	2,489
2021	2,128,699	113	114,203	139,772	85	10,420
2022.1~5.	1,045,504	80	34,517	80,233	84	7,058

(자료: Global Trade Atlas, 중국 원자재 시장 조사업체 BAIINFO)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태양광 발전은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 중 하나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 **관련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충에도 단기 내 수요 폭증으로 수급불균형에 따른 글로벌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 전망
 - 2050 글로벌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서는 '30년까지 태양광 발전 능력을 '21년의 4배로 확충 필요
- 태양광 패널 제조 전반에 **중국점유율이 80% 이상** → 내·외부 요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단절에 매우 취약, **각국 정부는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태양광 산업 육성 대책 마련**이 필요
 - (중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 '11년부터 500억 달러(유럽 투자금액의 10배 이상)를 투자하여 30만 명 고용 창출, 이러한 적극적 투자로 10여년 사이 태양광 패널 생산의 중심이 일본, 미국, 구주 → 중국으로 이동
 - ※ (중국의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 주요 제조단계의 약 80%를 점유 중이며 태양광 패널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향후 수년간 점유율은 95%로 예측**. 이중 폴리실리콘의 경우 '21년 기준 중국이 세계 생산능력의 79% 차지하며 그 중 42%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비위구르 지역은 37%)
- 또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해외시장 공략에 힘을 쏟으며 수출을 늘리고 있는 만큼 **중국기업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장, 관련 수입 규제(ex. 미국) 및 대응 방식 등을 예의주시**해야 함
 - 최근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인사이트 19호)에 따라 한 중국 대형 기업이 수출한 태양광 모듈을 전격 압류 조치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중국 태양광 제품 생산기업들은 동남아 공장의 생산능력 확장을 통해 미국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바, 주요 중국 기업의 동남아 지역 생산라인 신증설 상황 모니터링 필요

〈 동남아에 공장을 설립한 중국 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들 〉

기업	공장 소재지	(실리콘 웨이퍼) 생산능력
지룽(隆基)	말레이시아	0.8GW(연내 4.1GW 도달 예상)
징아오(晶澳)	베트남	1.5GW(6월 말 4GW 도달 예상)
징커(晶科)	베트남	7.0GW
텐허광닝(天合光能)	동남아	6.5GW(검토 중)

(자료: 각 기업 공고, 창장(長江)증권)

GVC 돋보기 : 철강의 생산방식 1편 - 고로 방식(BF, Blast Furnace)

※ 철강은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우리 주력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자재이고 코로나 회복세 속 철강재·철광석 가격 급등 등으로 철강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공업 분야 필수원자재 '철강'의 공급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철강의 생산방식 시리즈 〉

20호	고로 방식
21호	전기로 방식

● 철강 제조방식 ① - 고로 방식

- 철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에 이어 4번째로 풍부한 지각 구성 원소로서(지각의 약 5%) 가격이 저렴하고 성형이 쉬워 금속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대표적인 철강 생산공정인 고로 공정에서는 철강재가 4가지 절차 '제선-제강-연주-압연'를 통해 만들어지며, 이를 통틀어 "일관제철"이라고 함



● 제선공정 - 쇳물(용강)을 생산하는 기초공정

- 제선공정에는 ① 고로방식, ② 파이넥스 방식(국내 개발 고유공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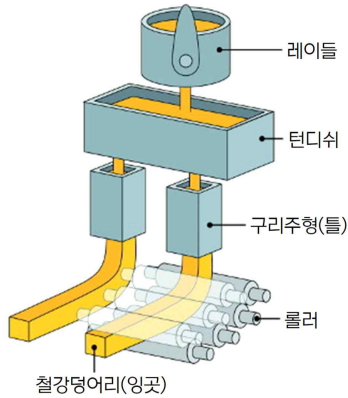
<p>① 용광로 방식 (高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상태의 철광석은 붉은 산화 상태로 존재하므로, 산소를 제거하여 철로 되돌리고(환원) 철을 액체 상태로 용융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정 • 가루 형태의 철광석·석탄을 쌓을 경우 열풍이 통과하지 못해 용융이 어려우므로, 용광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철광석과 석탄을 단단한 덩어리형태로 만들어야 함 • 철광석에 열을 가해 덩어리로 만든 것을 소결광, 석탄을 고온에서 쪼내 덩어리로 만든 것을 코크스라고 함 • 소결광과 코크스를 용광로(100m 높이)에 겹겹이 쌓고 아래에서 뜨거운 바람(1200℃)을 불어넣으면, 코크스(석탄)가 타면서 나오는 열에 소결광(철광석)이 녹아 쇳물생성(1500℃) • 고품질·대용량의 쇳물을 생산하지만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용광로의 건설비가 많이 듦
<p>② 파이넥스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광로 방식과 달리 소결 및 코크스 공정이 불필요하여 가루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활용 → 설비비 및 원가절감, 소결·코크스공정의 오염물질이 감소하여 친환경 • 철광석(가루)는 유동환원로에서 환원철(산소가 제거된 철)이 되며 용융로에서 유연탄(석탄)이 타면서 나오는 열에 의해 쇳물이 됨

● 제강공정 : 쇳물(용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로 만드는 공정

- 용광로에서 제선공정을 마친 쇳물을 토페도카(고온·고중량의 쇳물을 옮기는 기차)로 옮긴 후 탈황공정(황을 제거하여 품질향상)을 거쳐 전로에 주입하며 이때 슬래그(찌꺼기의 형태)가 떠오르는데 이를 제거
- 제선공정에서 만들어진 쇳물에는 과량의 탄소, 인, 황 등 불순물이 섞여 있어 경도가 높으나 가공성이 낮고 잘 깨지는 성질(취성)이 있으므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전로에서 출강된 쇳물에는 망간, 규소, 실리콘 등 합금원소를 투입하여 원하는 성분의 쇳물을 만들



● **연주공정(연속주조공정) : 액체상태의 철이 고체가 되는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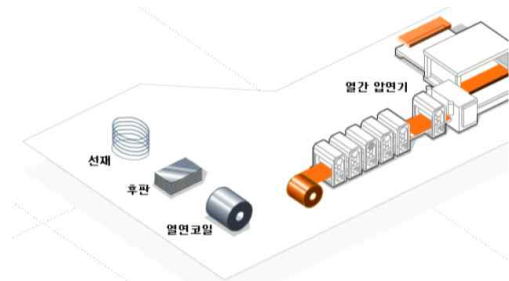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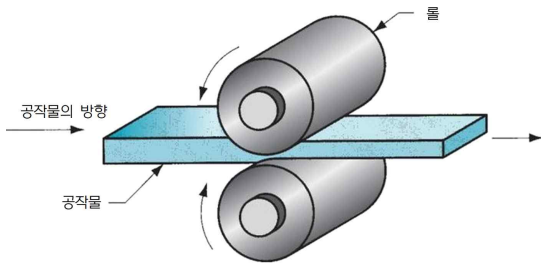
※잉곳 : 금속 또는 합금을 한번 녹인 후 주형에 올려 넣어 굳힌 것

- 제강공정을 마친 쇳물은 연주공장의 레이들(쇳물을 담는 용기)로 옮겨지고 쇳물을 여러 개의 구리주형(틀)에 배분해주는 턴디쉬를 거쳐 구리주형을 통과함
- 이때 구리주형(틀) 바닥의 형상에 따라 철강의 단면 모양이 결정되며 통과시 쇳물은 수냉 구리주형과 접촉하게 되어 쇳물의 표면이 응고되기 시작
- 약 25mm/s의 속도로 하강하는 쇳물에 물을 분사하여 냉각을 가속시키고 반고체화 된 쇳물을 롤러를 활용하여 수직→수평으로 굽힘
- 롤러에 의해 수평으로 굽혀진 철강덩어리(잉곳)는 원하는 크기로 절단되어 반제품인 **슬래브·블룸·빌릿**의 형태로 만들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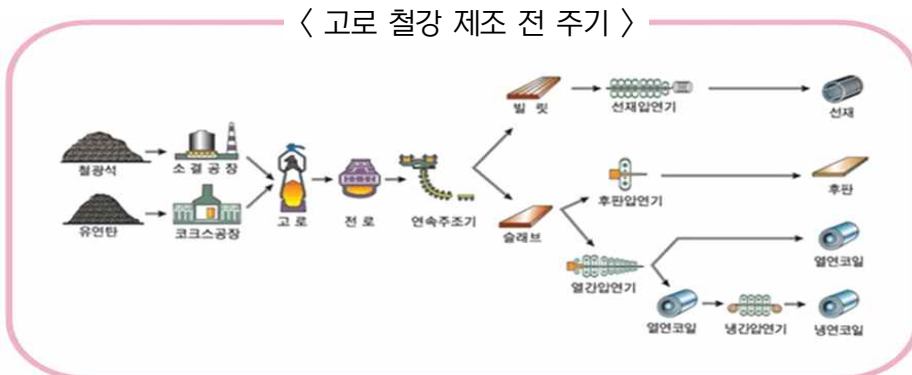
슬래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처럼 납작한 모양(두께 50mm, 폭 300mm 이상)의 반제품 • 후판(두께6mm 이상), 강판 등 판재류의 압연(롤러를 활용하여 두께를 줄이는 공정)소재로 사용
블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면이 직사각형꼴(한변의 길이는 약 130~430mm)인 반제품 • 주로 중대형 봉형강(기다란 봉 모양의 강, rod), I빔(건축용), 철도레일의 압연소재로 사용
빌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면이 정사각형꼴(한변의 길이는 약 120~160mm)인 반제품 • 주로 소형 봉형강(기다란 봉 모양의 강, rod), 선재, 바(각봉), 와이어 등의 압연소재로 사용

● **압연 : 반제품에 압력을 가해 최종 제품으로 가공하는 공정**

- 2개 이상의 롤(roll)을 회전시키고 그 사이에 금속 재료를 통과시켜 판재의 두께 및 단면적을 줄이거나 봉·관 모양으로 가공하는 공정이며 수행온도에 따라 **열간압연(800℃ 이상)**과 **냉간압연(상온)**으로 분류



- 연주공정을 통해 얻은 **슬래브·블룸·빌릿**은 **열간압연** 실시 후 **후판·선재·열연코일**(열연강판을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놓은 제품)의 형태로 저장되며 이 중 열연코일의 경우, 정밀한 치수와 매끈한 표면, 고품질을 위해 **냉간압연**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함





GVC 전문가 :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품귀현상의 원인과 대응 방안

- Semiconductor shortage: How the automotive industry can succeed (McKinsey, 6/10) 요약

※ 최근 맥킨지(McKinsey)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현상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명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 업계 내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목했다. 자동차 산업 내 반도체 조달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이를 극복할 대안에 대해 알아보자.

●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부족은 반도체 생산 차질과 더불어 최근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적인 반도체 과잉 주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코로나19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등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소요 기간이 연장되거나 생산 자체가 어려워졌고, **현재 반도체 리드타임***은 생산시설이 충분한 경우 4개월, 그렇지 못한 경우 최소 18개월 이상 소요됨

* 리드타임(lead time): 반도체를 주문한 시점부터 실제로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다른 용도의 반도체 대비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주문제작에 기반한 다품종소량생산 방식의 커스텀 칩(custom chip) 수요가 많아서 단기간에 대량 양산이 어려움
-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완성차 업체·1차 협력사들은 반도체 재고 확보를 위해 필요량보다 10~20% 과잉 주문**하여 반도체 공급망에 부담을 가중
 - 자동차 업계는 전통적으로 재고 절감을 위해 효율 위주의 **적시생산방식(JIT)**을 채택하여 완성차 업체, 1차 협력사, 차량용 반도체 공급자들 간 증장기 부품 수요에 대한 정보공유가 어려운 구조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완성차 업체 및 1차 협력사들은 적시생산방식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줄여 대응하였고, 이후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갑자기 증가한 보복소비 및 펜트업*(Pent-up)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됨
 - * 펜트업 효과: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히 살아나는 현상으로 펜트업 효과는 수요에, 보복소비는 소비에 방점이 있음
 - 현재 반도체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반도체 초과수요로 인한 생산설비 부족이 지목되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반도체 재고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이 더 큰 문제일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

● 차량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내부의 정보공유와 더불어 증장기적인 공급망관리 프로세스 수립이 요구됨

- 당장의 반도체 재고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는 자동차 설계단계부터 생산이 까다로운 커스텀 칩의 사용 비중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부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한정된 반도체 재고를 우선순위가 높은 생산라인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함
- 단기적으로 완성차 업체는 향후 자동차 생산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협력사 및 반도체 공급자와 공유**하여 이들이 필요한 반도체 수량 및 종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급망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완성차업체와 협력사들의 반도체 재고관리에 도움이 되며, 더불어 반도체 공급자입장에서도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생산시설 증설 등 대응에 필요한 시간 확보 가능
-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업계 이해당사자(완성차업체, 협력사, 반도체 공급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 우선순위가 낮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함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상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상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해상운송] 중소기업 철강 벌크화물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포스코)

- (사업개요) ①포스코 ②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 반제품류) ③포워더의 수출 화물을 합적하여 해상 운송 지원
*포스코의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을 통해 합적 운송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필요

< 항차 정보 >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 (상세내용) 포스코 공동 "회원사 해상운송 지원사업"(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www.steel-n.com) → 회원가입 신청
→ 회원가입 승인 이후 화물 합적 신청
- (문의처) (사업·참가신청)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7617/ hjo117@kita.net
(화물 합적·플랫폼 관련) 포스코 해외철강물류그룹 ☎ 02-3457-3199 / hjlee0913@poscoflow.com

● [물류보관] 수출 컨테이너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시 보관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칼트로지스)

- (사업개요) 항만 CY 적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포워더社は 신청불가)
①수출 컨테이너 보관장소 제공 ②보관료 할인(일반가격 대비 30%) ③기타 물류 업무 상담 및 지원

< 서비스 정보 >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를 통해 직접수배 필요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이며, 특수 컨테이너는 사전 문의 및 확인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 (상세내용) 수출 컨테이너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시 보관 지원사업(링크)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hjo117@kita.net)
-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5754/5935 / hjo117@kita.net
(물류센터 보관 및 작업 문의) 칼트로지스 「부산신항물류센터」 ☎ 051-366-8011 / hukim@calt.co.kr

● [복합운송]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국내 수출기업(실화주)을 위한 전용 선복 마련 (포워더社は 신청불가)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복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항차 정보 >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 (*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40피트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년 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출항예정일(매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화요일 17:00	수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7: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삼성 SDS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كل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안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아시아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상담회 개최 소식

● 일본 스마트공장 EXPO 한국 공동관 온라인 참여기업 모집

- 일본 최대 제조업 혁신 이벤트 'Factory Innovation Week Nagoya 2022'에 KOTRA는 한국기업 공동 홍보관을 구성, 우리 기업 제품의 디지털 전시 및 온라인 상담 주선과 현장 대리상담을 무료로 지원
 - 일시/장소 : 10월 26일(수)~28(금) / 온라인 [전시 자체는 포트메세 나고야에서 진행됨]
 - 신청기한 : 7월 15일(금) 限
 - 참가신청 : [일본 스마트공장EXPO\(클릭\)](#) 세부 사업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1)사업신청서 작성 및 2)카탈로그, 동영상 등 기업 IR자료(일문/영문 버전) 첨부
- 디지털전시가 가능한 콘텐츠 보유 및 일본어 자료 대응 가능한 기업 우대
 - 참고사항 : [Factory Innovation Week Nagoya 2022\(홈페이지\)](#) 통하여 전시 개요 확인 가능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최영미 과장 ☎ (02) 3460-7641
KOTRA 나고야무역관 정순인 차장 ☎ (+81)-52-446-7800 / suninj@kotra.or.kr

● 중국 선양국제로봇박람회 연계 서비스 의료 로봇 상담회

- 우리 서비스용 로봇(의료, 재활, 웨어러블 로봇 등) HW 및 SW 기업의 중국 관련 기업과의 온라인 수출상담회
 - 일시/장소 : 8월 25일(목)~30(화) / 온라인
 - 신청기한 : 7월 29일(금) 限
 - 참가신청 : [2022 선양 서비스로봇 상담회\(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 첨부파일 내 온라인 전시 정보 관련 파일 작성 후 업로드
 - 참고사항 : 선양CCPIT와의 협업 사업으로 우리 기업 약 10개사 모집
 - 문의처 : KOTRA ICT융복합팀 신지혜 대리 ☎ 02-3460-7463 / wisdom@kotra.or.kr

● SMM 전시회 연계 한-독 조선기자재 GP사업

- 함부르크는 독일 제1의 항구로 현지 벌크선 및 크루즈선 유지보수 기업 등과 우리 조선기자재 등 기업 간의 1:1 핀포인트 상담회 및 글로벌 기업 구매·개발동향 세미나
 - 일시/장소 : 9월 6일(화)~9일(금) / 독일 함부르크 Messe SMM전시장
 - 신청기한 : 7월 29일(금) 限
 - 참가신청 : [SMM 전시회 연계 한-독 조선기자재 GP사업\(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 1)사업신청서 작성 및 2)카탈로그, 동영상 등 기업 IR자료(영문 버전) 첨부
 - ※ 독일 현지 오프라인 사업으로 출장비 등 기업 부담 필요
 - 참고사항 : [SMM 전시회 연계 한-독 조선기자재 GP사업\(클릭\)](#)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이지향 사원 ☎ 02-3460-7643 / jihyange@kotra.or.kr



더 찾아보기 : 러-우 사태가 독일에 미친 영향, 현지에서 들려드립니다

※ 매주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전하고 있는 러-우 사태에 따른 유럽의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등의 공급망 위기를 현지에서도 체감하고 있을까? 과거 독일에서 20년간 거주하고 현재 독일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KOTRA 출신의 쾰른투자 유튜버 강한국씨를 통해 확인해보자

●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EU, 특히 독일의 에너지 위기를 전하고 있는데 현지에서의 체감은?

- 독일에 거주할 때는 어떠한 에너지원이 주로 활용되는지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석탄 소비량의 약 50%, 석유 소비량의 1/3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55%를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조달 중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제6호)

- 서방과 러시아 제재는 함께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단칼에 끊을 수도 없기에 말 그대로 독일은 서방세계와 러시아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 에너지 일국 의존의 위험을 독일이 손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 역시 생전 겪어본 적 없는, 겨울 가스 부족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위기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위기인지?

- 유로존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 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6월에는 8.6%로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 금리(현재 예금금리 -0.5%)를 올려야 하지만 이탈리아와 같이 부채 규모가 크고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국가가 바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 ECB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 한편 라가르드 ECB 총재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요인'이라는 꾸준한 주장에 독일 현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는데, 7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고, 중기 물가상승률 전망에 따른 더 큰 폭의 인상도 고려하겠다는 발표에서 ECB의 입장 변화가 일부 느껴지기도 합니다.

※ (유로존 기준금리) 현행 0%로 '16.3월 0%로 낮춘 후 유지 중이며, '22.7월 금리 인상 단행한다면 '11.7월 이후 정확히 11년만의 금리 인상임

● 현지 실생활에서도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변화가 느껴지는지?

-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겠지만,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1년 전 <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의 강한국씨 > '21년 여름 KOTRA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마칠 당시 리터당 1.3유로였던 기름값이 지금은 2유로입니다.



- 그래서 독일 정부는 러-우 사태에 따른 유류비 급등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행, 9유로로 한 달간 도시 간 열차(한국으로 치면 KTX, SRT, 새마을호)를 제외한 전철과 버스, 트램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티켓을 도입했습니다.

- 기존 독일 교통비를 생각하면, 시내에서 이틀만 사용해도 본전을 뽑는 상황! 저도 물론 샀습니다 'U'

- 또한 러-우 사태 이후 2월부터 식용유 공급망 우려로 사재기가 발생,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개인 및 소매용 구입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식용유 공급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 전 세계 해바라기씨유 소비량의 52%, 25%를 점유하기에 각국의 조달 우려로 대두유, 카놀라유 등 여타 식용유의 수급 불안을 자극, 사재기 및 주요 생산국 수출 제한 발생

※ (생각해보기)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는 러-우 사태에 따른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이지만, 국가·권역간 경제 의존 정도에 따른 산업별 체감은 상이하며, 그 대처 방식 역시 다양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7. 13. 수)

[환율]

	'20.12.31	'21.12.31	'22.6.30	'22.7.8	'22.7.11	'22.7.12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98.40	1,300.40	1,303.90	1,312.10	+0.63%	+10.37%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98.50	1,299.80	1,303.60	1,312.20	+0.66%	+10.27%
₩/CNY	166.04	186.51	194.05	194.25	194.36	194.85	+0.25%	+4.47%
₩/Y100	1,051.19	1,032.48	953.16	958.64	951.82	955.64	+0.40%	-7.44%
Y/U\$	103.34	115.14	136.22	135.65	136.99	137.30	+0.23%	+19.25%
U\$/EUR	1.2279	1.1318	1.0463	1.0167	1.0132	1.0027	-1.04%	-11.41%
CNY/U\$	6.5305	6.3681	6.6952	6.7038	6.7117	6.7258	+0.21%	+5.62%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7.11 (전일)	'22.7.12	전일(7.11)비			
					전일(7.11)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4.03	102.16	▼1.9	▲52.1	▲25.0	
					-1.8%	+104.1%	+32.5%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14.05	105.80	▼8.3	▲18.5	▼15.0	
					-7.2%	+21.2%	-12.4%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623.00	7,370.50	▼252.5	▼385.0	▼2,321.5
						-3.3%	-5.0%	-24.0%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417.00	2,358.00	▼59.0	▲406.5	▼448.0
						-2.4%	+20.8%	-16.0%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1,500.00	21,450.00	▼50.0	▲5,543.0	▲525.0
						-0.2%	+34.8%	+2.5%

[반도체]

	'20	'21	'22.4	'22.5	'22.6	7.7	7.8	7.11	7월(~1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47	3.39	3.28	3.25	3.23	3.21	3.25
(%, YoY)	-21.9%	+8.0%	-25.1%	-23.9%	-28.6%	-29.3%	-29.8%	-30.3%	-28.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2	8.28	7.30	6.98	6.95	6.94	7.03
(%, YoY)	+7.0%	+32.8%	+34.5%	+30.2%	+9.4%	+4.0%	+3.6%	+3.5%	+4.4%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6.17	'22.6.24	'22.7.1	'22.7.8	전주(7.1)비	
운임지수	5,046.66	4,221.96	4,216.13	4,203.27	4,143.87	-1.4%	-17.9%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6.30	'22.7.5	'22.7.6	'22.7.7	'22.7.8	전일(7.7)비	
BDI	2,217	2,240	2,098	2,043	2,073	2,067	-0.3%	-6.8%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 기관

